

엔리카 렉시 사건에 대한 잠정조치 명령 평석

서유진*

* 한국해양대학교대학원

Commentary on the Provisional Measures for the Enrica Lexie

Suh Yu Jin*

*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핵심용어 : 유엔해양법협약, 잠정조치, 엔리카 렉시 사건

Key Words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provisional measures, Enrica Lexie Case

1. 사건 개요

2012년 2월 15일 엔리카 렉시호(M/V Enrica Lexie)가 스리랑카에서 지부티로 이동하던 중 케랄라 해안으로부터 약 20.5해리를 통과할 때, 미확인 선박이 약 2.8해리에서 레이더로 감지되었고 엔리카 렉시호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때 엔리카 렉시호에 타고 있던 이탈리아 해병 Latorre와 Girone는 미확인 선박이 엔리카 렉시호로 해적 공격을 행한다고 판단하여 시각적·청각적 경고와 경고 사격을 행하였다. 이에 미확인 선박은 공해(open sea)로 향하였다. 이후 엔리카 렉시호는 인도 당국으로부터 코치 항구로 향할 것을 지시받았고, 조사과정에서 인도 당국은 안토니오(St Antony)에서 두 명의 어부가 죽은 사건이 엔리카 렉시 사건과 관련된다라고 보았다. 이에 인도 케랄라 경찰은 해병 Latorre와 Girone를 2012년 2월 19일에 정식으로 체포하여 구금하였다.

2. 첫 번째 잠정조치

2015년 6월 26일 이탈리아는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에 대한 통지를 인도에 송달하였으며, 중재재판소의 구성을 기다리던 중, 2015년 7월 21일 유엔해양법협약 제290조 제5항에 따라 잠정조치 명령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하여 국제해양법재판소는 2015년 8월 24일 잠정조치를 명령하였다.

...(중략)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이탈리아가 신청한 잠정조치를 거절하였으나, 대신에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모든 인도 및 이탈리아의 국내 형사소송 절차의 정지를 명령하는 잠정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인도의 형사 관할권을 보호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3. 두 번째 잠정조치

첫 번째 잠정조치 이후 이탈리아와 인도는 이 사건에 대한 제7부속서에 따른 중재재판소의 구성을 시작하였고, 구성하던 중인 2015년 12월 11일에 이탈리아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0조 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 명령을 이 중재재판소에 제출하였다. 중재재판소는 이탈리아의 요구를 받아드려, 2016년 4월 29일에 잠정조치를 명령하였다.

...(중략)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는 인도와 이탈리아 간에 유엔해양법협약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이 있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일응관할권이 존재한다고 여겼다. 그리고 이 잠정조치는 인도법원의 권한에 대한 침해 없이 Girone 병장의 물리적인 위치만을 변경한다고 보아 이탈리아의 신청을 수리하였다. 그리고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는 인도적 차원에서 Girone의 권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4. 결론

엔리카 렉시 사건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와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각각의 잠정조치 명령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각 재판소가 일응관할권, 잠정조치의 목적인 소송 중 권리 보호와 분쟁의 악화,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및 긴급성 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중략)

이 엔리카 렉시 사건과 같이 국제 분쟁에서 잠정조치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는 늘고 있으며, 해양 활동이 많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분쟁의 소송당사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의 잠정조치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First Author : yujinsuh@naver.com